

3백77시간 어둠에 생명의 빛 쏟아지던 날

“착한 딸 되겠어요” 부처님께 약속

‘기적의 생환’ 주인공 박승현 양

지난 8월 20일 사고 당일날 아침, 박승현양은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출근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밤 백화점에 함께 근무하는 친구 정인리와 보았던 비디오 이야기, 이력서 이야기로 재잘대며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지하철역으로 출근을 했다.

에어콘 고장으로 유난히 더웠던 그날 오후 6시경 “우르르” 피할 사이도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 정신을 차려 눈을 뜰때 콘크리트 덩어리 승현양은 혼자 갇혀 있었다. 캄캄했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무서웠다.

어둠속 떠오른 엄마얼굴

“엄마!” 사고가 나던날 아침 3천원만 달라던 승현양에게 그것 가지고 뭘하겠냐며 주머니에서 1만원을 넣어주시던 엄마(고승영보살)의 따뜻한 팔자손이 아롱지며 기억속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어둠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유독 또렷이 떠올랐다. “살려주세요” 공허한 메리언이 콘크리트덩어리 사이를 헤쳐나갔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현등불개소리 에 잠을 했다. 너무나 무서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성, 응성... 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3백 77시간의 절망속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왔고 어느새 승현양의 몸은 병원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딸이
살아 돌아올 것
이라 믿으며 매일
매일 관세음보살
같이 지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3일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환화와 경이로움속에 16일 일요일 아침 승현양은 눈을 떴다.

병실밖에는 복직대는 취재진과 기해서 우는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승현양과 함께 일했던 동료가족들이 찾아와 환율의 희망이라도



◇ “모든이에게 행복의 기쁨을 준 인연공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리”는 광우스님의 축원속에 승현양은 스님 및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합창을 올렸다. (사진=박재환 기자)

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께 지성으로 기도를 올렸던 엄마 고승영보살과 아빠 박재환가사도 곁에서 남편의 무애 눈시울을 흘렸다. 승현양의 할머니 차영보살은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하고 애교를 떨던 승현양을 다시 못 만날까봐 마

일주스님과 사현스님, 덕신스님 등이 방문, 쾌유를 비는 호신불사제와 백일염주, 불서를 선물하자 승현양은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말하기도.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 정덕

공포·절망속 그리운 가족얼굴 떠올라 “이 사과 받아라” 스님 꿈 꾸고 바로 구조

리운 얼굴들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할머니, 오빠, 그리고 귀여운 막내동생 승호... 그러다 어느새 또 잠이 들었다. 공속에서 스님을 만났다. “승현이 이 사과를 받아라” 스님이 사과 하나를 건네 주었고 “고맙습니다. 스님” 하면서 남쪽 그 사과를 손에 쥐었다. 그 사과를 다시 잠을 했다. 꼭 살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아나기만 한다면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하는 착한 딸이 되겠요”라며 무릎 꿇고 부처님과 약속을 했다. 얼마나 지냈을까. ‘파아광! 광!’ 기계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응

간지러는 듯 애타게 실종된 딸의 안부를 묻느라 얼마 고승영보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복색통이었다. 고보살은 딸이 살아 돌아온 기쁨도 잠시 물어뜯겨 실종자가족들의 애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울려서 있었다.

막내동생 승호(현호중 1)도 그 사람들 틈에서 아침부터 내내 누나 승현양을 기다렸다. “누나! 텔레비전 보고 나 울었어. 빨리 보고 싶었는데 못봐서 정말 화났었어.”라며 승호가 누나에게 주려고 가져온 과자 봉지를 내밀었을때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승호야, 누나도 승호가 보고 싶어” 딸이 살아돌아올 것이라 믿

음 울었다며 승현양의 손을 고옥 잡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귀여운 우리 손녀딸”

“부처님이 살려 주셨구나”

스님이 사과를 주는 꿈을 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 부처님이 살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승현양의 아버지는 살아돌아온 딸이 대견스러워 내내 눈을 떼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승현양은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 구조 당일날 저녁에는 공용사 필공스님이 찾아와 승현양을 위로했다. 지난 1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법성스님, 영안스님, 정성스님, 성우스님, 혜조스님이 중환자실로 승현양을 찾아왔다.

“어둠속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견뎌내 모든이에게 행복의 기쁨을 준 그 인연공덕이 커서 승현양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거다”라고 광우스님이 축원에 주셨고 승현양은 “감사합니다”하고 답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다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승현양의 엄마 고승영보살도 “부처님의 딸이니 다시 일어났조 뭐”라고 하면서 다 함께 무릎을 모으고 부처님전에 다시 한번 감사기도를 올렸다.

이은자 기자

인터뷰

“승현이 위해 매일 금강경 기도”

승현네 절 금용사 주지 월공스님

“떨어지지 않는 수승한 그 법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지난 15일 매를 3백77시간만에 구조된 박승현양이 다니는 금용사의 승현네 절 금용사 주지 월공스님은 승현양의 생환을 이렇게 말했다.



사과나기 1달 전인 지난 6월 6일 승현이가 가족과 함께 금용사를 찾아와 벽화점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때 “그것도 재대로 못해내면 앞으로 무슨일을 재대로 해내겠느냐고 아

달 월공스님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승현이의 생환을 위해 금강경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며 승현이가 다니는 금용사의 생환을 확인했고 사고발생 15주지 월공스님은 승현양의 생환을 이렇게 말했다.

“15일 아침기도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승현이가 구쪼뻤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스님은 “은가족이 돈독한 신심으로 부처님

께 의지해 승현이의 생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기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년 가을 범주사사 출가했다는 월공스님은 “아름다움을 바로잡는 일이다”라면서 두번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ANIYASUTTA (다니아경)

◆ ‘I have boiled my rice, I have milked my cows’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 ‘I am living together with my fellows near the banks of the Mahi river, my house is covered, the fire is kindled: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밥도 지어 놓았고 소젖도 짜 놓았습니 다. 목동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마히강둑 가까이에서 처자와 살고있습니다. 집의 이 엄은 영었고 불도 지펴 놓았으니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I am free from anger, free from stubbornness’ - so said Bhagavat: ‘I am abiding for one night near the banks of the Mahi river, my house is uncovered, the fire of passion is extinguished: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성냄에서도, 고집에서도 해방되었다.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마히강둑 가까이에서 허룻밭을 묵고 있으며 이 엄은 잊지 않았고 욕정의 불은 꺼졌다. 그러니 좋다면 비를 내리라, 오 하늘이여!

◆ ‘Gad-flies are not to be found with me’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 ‘in meadows abounding with grass the cows are roaming, and they can endure rain when it comes: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④

쇠파리도 없고, 풀이 무성한 초원에서 소들은 노닐고 그들은 비가 와도 잠을 수 있으니, 좋으시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By me is made a well constructed raft.’ - so said Bhagavat, - ‘I have passed over to Nibbana, I have reached the further bank, having overcome the torrent of passions: there is no further use for a raft: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튼튼한 뗏목을 만들어,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열반으로 건너갔다. 나는 욕정의 급류류를 이겨내고 피안에 이르러 이제 뗏목이 필요없으니,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My wife is obedient, not wanton,’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 ‘for a long time she has been living together with me, she is winning, and I hear nothing wicked of her: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내 아내는 순종적이고 부정한 여인도 아닙니다. 목동 다니아가 말했다. 아내를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았는데 매력적이고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좋으시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한영우 기자

◇ ‘주부신행담’ · 그림이 있는 불교 예세이입니다.

“패션 자동차 시트커바”

ALT-X

AUTO DRESSING SHOP

① 이대야 ② 어두도반 ③ 아네모네 ④ 피스틴방 ⑤ 폰 ⑥ 아로스 ⑦ 타겟 ⑧ 루머너스 ⑨ 드림틀 ⑩ 시그널

● **매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유하고, 개인분
기차 - 주유소, 대형키엔테이어,
벽화점 등 부하 받습니다.

● **책임사범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경 이병우

● **ALT-X세인트점**

인천연수점	(032)812-9553
서울강남점	(02)556-4468
서울북부점	(02)9923640
서울구로점	(02)808-3441
의정부점	(035)872-2192
안양점	(034)53-9263.4
수원점	(031)38-8280.1
대구서부점	(053)654-6204
대전서구점	(042)633-7071
전주점	(065)2174-0072
경주북구점	(062)524-4255
제주점	(064)58-2660.1

● **사원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테리이 프리디자이너
3. 편집 디자이너
(각종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정영정

인천연수점 (032)812-9553